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박주영·기성용 '황금 콤비' 오늘밤 멕시코 잡는다



런던올림픽 축구 예선 1차전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둔 홍명보호가 25일(한국시각) 영국 뉴캐슬의 뉴캐슬 유니버시티 코크레인 스포츠 클럽에서 훈련을 하는 가운데 박주영과 기성용이 밝은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10시 30분 조별리그 B조 1차전 북중미 강호 상대 축구 첫메달 가능성 타진

'기성용(셀틱)이 밀어주고 박주영(아스널)이 결정한다.'

'북중미의 난적' 멕시코와의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첫 경기를 하루 앞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기성용의 '명품 패스'와 박주영의 '몰아치기'를 앞세워 사상 첫 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홍명보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한국시각으로 26일 오후 10시30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파크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런던올림픽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1948년 런던 올림픽 때도 대결한 멕시코를 상대로 2승1무로 앞서고 있다.

최근 두 차례 평가전에서도 2연승을 거두면서 1차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불태우고 있다.

대표팀은 박주영을 꼭짓점으로 김보경(세레소 오사카)-남태희(레퀴아)의 좌우 날개로 구성된 최전방 '삼각 편대'의 화려한 공격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위력을 더해가는 '와일드 카드' 공격수인 박주영의 물오른 결정력과 중원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면서 구석구석으로 볼을 배급하는 기성용의 질러주기 패스는 단연 멕시코전 승리의 해법으로 손꼽힌다.

박주영의 최대 장점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원샷원킬' 능력과 연속골에 능하다는 것이다.

박주영은 지난 14일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왼발 뒤꿈치로 볼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재치있는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고, 21일 세네갈 평가전에서선 1-0으로 앞서던 전반 6분 기성용의 프리킥을 정확한 눈으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2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박주영은 지난해 A대표팀에서도 5경기 연속골(8골)을 넣을 정도로 몰아치기 골에 능하다.

박주영은 최근 병역 회피 논란으로 마음고생을 하며 잠시 참체계를 가졌지만 골 감각

만큼은 현재 올림픽 대표팀 공격수 중에서 절정을 달리고 있어 이번 멕시코전을 준비하는 홍명보호 감독을 든든하게 해주고 있다.

더불어 중원에서 좌우 측면으로 세도하는 공격수에게 내주는 기성용의 자로 잰듯한 패스 능력도 올림픽 대표팀 전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성용은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 전반 3분 만에 기막힌 중거리포로 결승골을 뽑아내더니 전반 6분 2선에서 달려드는 박주영을 겨냥해 정확한 프리킥으로 골을 만들어냈다.

특히 2-0 상황에서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뽑아낸 페기골의 처음 시작도 기성용의 빠르고 정확한 스투패스에서 시작됐다.

중원에서 강력한 몸싸움으로 상대 공격을 저지하고 나서 좌우 측면으로 재빠르게 내주는 패스는 이번 멕시코전에서 빛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원에서 기성용이 빠르고 정확한 패스를



내주고, 이를 통해 만들어낸 찬스를 박주영이 문전에서 골로 만들어준다면 최종 목표인 메달 획득도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홍 감독은 "세네갈전에서 보여준 기성용의 중거리슛이나 두 번째 골의 세트 플레이 상황은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라며 기성용의 발끝에서 시작돼 박주영의 마무리로 이어지는 기본 전술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태극神弓 사대 오른다

내일 남녀 랭킹 라운드



런던 올림픽에서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하는 태극궁사들이 드디어 실전 사대에 오른다.

한국 선수단은 28일(한국시각) 영국 런던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72발씩(사거리 70m)을 쏘아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의 대전을 결정하는 랭킹 라운드를 치른다.

출전자는 임동현(청주시청), 김범민(배재대), 오진혁(현대제철) 등 남자부 3명과 이성진(전북도청), 최현주(창원시청), 기보배(광주시청) 등 여자부 3명이다.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는 세계 크리켓의 메카에 양궁 관전을 위한 관중석을 따로 마련한 특설 경기장이다.

이 경기장은 특히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태극궁사'들은 관중이 주는 압박을 이겨내고 국내에서 소용돌이를 치렀고 현재에 와서는 급변하는 바람에 맞춰 재빠러 오조준하는 데 집중했다.

임동현, 오진혁, 기보배는 작년 10월 프레스 올림픽에서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했다고 코치진은 설명했다.

장영실 국가대표 총감독은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선수들의 기록도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기대대로 랭킹 라운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 개인전과 단체전 토너먼트에서 난적을 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전은 64강, 단체전은 16강이 경쟁한다. 한국이 단체전에서 경계할 상대로는 남자부 미국, 프랑스, 영국, 우크라이나, 여자부 인도, 대만, 중국 등이 꼽힌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브래디 엘리슨(미국)과 드미트로 흐라츠코프(우크라이나) 등이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여자부 개인전에서는 디피카 쿠마리(인도)와 청밍(중국) 등이 한국 선수들의 주요 경쟁자로 거론된다.

남녀 개인전 토너먼트는 오는 30일 시작되고 여자 결승전은 다음 달 2일, 남자 결승전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기보배, 이성진, 최현주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빼앗긴 여자 개인전 챔피언의 타이틀을 탈환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오진혁, 임동현, 김범민은 한국이 그간 올림픽에서 한 차례도 따보지 못한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3명 가운데 누군가 목에 걸 것이라고 장담했다.

황금과녁을 쏘라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양궁 국가대표 임동현이 25일(한국시각) 올림픽 공식 양궁장인 런던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 연습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한국시각) 런던 브루넬대학교에서 열린 북중미대표팀 훈련에서 라이트플라이급에 출전하는 신중훈이 스피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싱 '24년 노 골드' 분노의 주먹

신중훈·한순철 한풀이 나서

이승배(41) 한국복싱 국가대표팀 감독은 지난 25일(한국시각) "누구와 불어도 자신 있다. 서울올림픽 이후 24년 만에 금메달을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감독은 이날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 캠프인 영국 런던의 브루넬대학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준비는 끝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복싱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최경량급인 라이트플라이급의 신중훈, 라이트급의 한순철 등 2명이 출전한다.

이중 라이트플라이급 세계 랭킹 1위인 신중훈은 올림픽 메달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선수로 평가된다.

이 감독은 신중훈에 대해 "항상 밝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훈련이 아무리 고해도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 감독은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과 승부욕이 대단한 선수다. 기량 면에서도 상대의 공격을 받아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 선수가 강력이긴

하지만 그동안 비디오 분석을 많이 했다. 훈련량도 충분했기 때문에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불어도 자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신중훈이 경계해야 할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다.

이 감독은 "상대에게 점수를 허용해도 잊어버리고 처음 전략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자칫 점수를 만회하려고 담벼름다가 오히려 점수를 많이 잃는다"면서 "경기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심리적인 부분이 초점을 맞춰서 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동메달,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은메달 등 1990년대 한국복싱을 대표한 스타였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복싱 국가대표 감독이 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이 감독은 "선수들이 부담감에 시달릴 때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 '힘들 때면 부모님 생각하라'고 얘기해준다"고 했다. 그는 "선수들의 컨디션은 현재 70% 정도"라며 "남은 기간 나머지 30%를 채우겠다. 3분 3라운드 첫 라운드처럼 될 수 있는 체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연합뉴스